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6년 5월호

통권 제 159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4월 교우소식

새 교우

- ❖ 송임호씨(27년생), 종로구 삼청동 35-111
☎ 730-5731.
102구역(구역장 : 이생림집사)



- ❖ 한정선씨(71년생), 한운경씨(74년생), 한선희씨(77년생), 종로구 원서동 76-10 대림빌라 201호 ☎ 763-3557
107구역(구역장 : 고옥희권사)

- ❖ 변재환씨(71년생), 삼청동 35-157
☎ 734-8102
102구역·청년(구역장 : 이생림집사)

- ❖ 이기열씨(51년생), 계동 89 ☎ 747-3378, 010-9782-3378 (곽양금 집사 인도)
106구역(구역장 : 유현일집사)

- ❖ 이동숙씨(78년생), 관훈동 192-10
☎ 010-2290-0187
103구역·청년(구역장 : 강정녀집사)

- ❖ 김은희씨(64년생), 권영재, 권영운(중고등부)
종로구 가회동 154 ☎ 741-3002
105구역(구역장 : 강춘자권사)



- ❖ 김종하씨(70년생), 계동 2-54
☎ 797-8737 (이경자 권사 인도)
106구역·청년(구역장 : 유현일집사)



- ❖ 백은하씨(72년생), 삼청동 2
☎ 743-7913, 017-327-7913
102구역(구역장 : 이생림집사)



- ♣ 이태평씨(35년생), 종로구 원서동 비원빌라 201호, ☎ 762-9729(이윤희집사 인도) 107구역(구역장 : 고옥희권사)



별 세

- ♣ 고 박차돌집사(최경일교우, 원명자집사 모친), 10일(월) 별세 12일(수) 장례
- ♣ 고 이세영집사(이의홍집사, 장현숙집사 부친), 12일(수) 별세 12일(월) 장례
- ♣ 고 함금혜성도(신순예집사, 김태량교우 모친), 18일(화) 별세 20일(목) 장례

결 혼

- ♣ 이소영집사(이영우씨, 황예상집사 1녀)와 류근창군 8일(토) 오후 2시 30분 대전 캐피탈타워 컨벤션웨딩 1층 슬로비홀

환 자

- ♠ 강자영권사, 백병원 1019호
- ♠ 유정자 권사(배복석집사 부인), 순천향병원 501호
- ♠ 오정숙권사, 큰사랑의원 5층
- ♠ 서원필군(유현일집사 아들) 서울병원 502호

감 사

- ♣ 문창아권사, 500인용 압력밥솥 기증
- ♣ 김영석장로, 최문수집사, 부활절계란 4,000개 전도용으로 기증
- ♣ 김태량교우, 신순예집사, 부활절 계란 1,000개 전도용으로 기증
- ♣ 정화성권사, 민대홍장로, 23일(주일) 전교인 점심식사 제공
- ♣ 이의홍집사, 장현숙집사, 30일(주일) 전교인 점심식사 제공

이 사

- ♣ 안주환, 배현화집사, 강북구 수유4동 282-7 ☎ 908-9270
- ♣ 김향숙권사, 남가좌동 379 삼성래미안 2차 103-201호 ☎ 376-3713

군 입 대

- ♠ 박용성군, 11일(화) 입대
- ♠ 이재영군(아동부교사, 이삼형집사, 정영란집사 1남), 24일(월) 입대
- ♠ 임성렬군(중고등부 교사), 24일(월) 입대

출 국

- ♠ 이효종장로, 7일(금)~12일(수) 중국 출장

축 하

- ♣ 김현욱(한계명권사 자부) 소프라노 독창회, 6일(목) 오후 7시 30분 영산아트홀

원로장로 추대식

교회창립 기념주일인 3월 5일 2부예배시에 이본 장로의 원로장로 추대식이 있었다. 박병욱목사가 개식사를 한 후에 베드로전서 5:1-4의 말씀을 읽었다. 당회 서기인 이주영 장로가 <이본 장로는 1976년 5월 30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29년 7개월을 안동교회 장로로 시무하였으며, 2005년 만 70세가 되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44조에 준하여 원로장로로 추대한다>는 추대사를 하여 추대식을 거행하였다. 축사는 본교회에서 첫 번째로 원로장로가 된 민대홍 장로가 하였고 원로목사인 유경재목사가 원로장로를 위하여 축복기도를 하였다.

이 추대식에서 이본장로는 지난 30여년간 안동교회의 시무장로로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앞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원로장로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감격의 마음을 나누었다.

교회에서는 성경찬송가와 금메달을 축하 선물로 증정하였고, 당회에서 금 5돈과 여전도회와 남선교회 등에서 각각 축하 선물을 전달하였다.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

사순절 마지막 2주간인 4월 3일(월)부터 4월 15일(토)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였다.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시작하였는데 박병욱목사는 이번 사순절에 제작한 <사순절 말씀묵상 40 계단>의 내용으로 계속하여 새벽 설교를 하였다.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들이 매일 2명씩 대표기도를 하였고, 향존직을 비롯한 각 선교회와 구역들에서 돌아가며 특별찬양을 하였다. 사순절을 마무리하면

서 금식과 회개, 기도를 통해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새롭게 하나님앞에 서는 영성의 시간을 가졌다.

중보기도자 서약식

5일(수) 수요성경연구시간에는 제 2기 중보기도자 서약식이 있었다. 2기에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서약을 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변상방 송숙자 유옥근 강신자 서영희 김경호 유혜순 한인수 한성자 최서섭 조정순 유현일 고명수 (13명)

이들은 일주일에 한번 한시간씩 맡은 시간에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

성금요일예배

4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다. '비아 돌로로사' 로 알려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라는 노래를 이희창 청년이 부르면서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영상으로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씀선포시간에는 특별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종래의 설교의 형식이 아니라 이본장로가 가상철언을 낭독하고 박병욱목사가 각 구절별로 해석을 덧붙이는 식의 설교를 하였다.

중간중간 독창자가 독창을 하였는데 찬양대의 최종원 형제가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를 독창하였고, 황재금집사가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를 독창하였다. 유혜순권사가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였노라' 라는 송명희씨의 시를 낭독하였다. 예배의 후반부에서는 회개와 결단의 기도와 십자가 묵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무리하였다.

부활절예배

4월 15일 부활절을 맞아 국내선교국 주관으로 부활절 계란나누기를 하였다. 계란 5,000개를 기증받아 각 선교기관의 협력아래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남녀선교회와 전도대, 청년부 및 일반 교인들도 참여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금년 부활절에는 본 교회 교인들에게 드리던 계란 배분을 지

양하고 대신 지역주민들에게 드리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후에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나누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총 8개의 장소를 정하여 교회앞에서는 한빛과 한누리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주었다. 안국역앞 마을버스 정차장에서는 한샘여전도회가, 미래꽃집 앞에서는 중고등부, 가회동앞에는 한길여전도회, 정독도서관 앞에서는 청년부, 계동입구 삼거리에는 한사랑과 한가람이, 비원열 용수산 앞에서는 한메가, 이대부속병원은 병원노래선교단이 맡아서 계란을 나누어 주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또 이에 앞서 수요일에는 안동전도팀이 계란을 예쁘게 포장하여 교회 인근의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며 나눠주었다. 음식점에서는 손님들에게 안동교회 전도지와 계란 1개씩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부활절 계란을 삶고 포장하는 일은 여자 교우들이 주로 맡아서 하였다.

부활절 예배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하였고 1부예배에서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최창해 목사가, 2부와 3부 예배에서는 “생명의 삶, 죽음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박병욱 목사가 설교하였다. 예배 후에는 윤상구 장로택정원에서 티파티를 하면서 교우들이 담소를 나누었다.



늘푸른교실 봄나들이

4월 26일 늘푸른교실에서는 논산에 있는 육군항공학교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는 본교회 출신 육군항공학교장인 백병기장군과 창공교회의 김성수장로가 늘푸른교실 회원 모두를 초청해 주어서 다녀오게 되었다. 8시 30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여서 전체 96명이 출발하였다.

항공학교에 도착해서 먼저 학교 내에 있는 창공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군목인 유석 목사가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예배 후 백병기 장군이 인사 말씀을 한 후 색소폰으로 찬송가를 연주하였다.

교회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창공교회 여전도회가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하였다. 근처에서 타조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수장로가 회원들을 위해 타조 한 마리를 잡아서 타조 불고기와 타조 계란말이를 특별음식으로 제공하였다. 식사후에는 항공기들을 구경하였는데, 교관들이 각각 항공기들을 소개해 주었고, 직접 항공기 이착륙과 비행등을 보여주었다.

이후에는 김성수장로의 타조농장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그 근처에는 계백장군의 묘와 군사박물관이 있어서 박물관도 관람하고 타조농장에서 타조와 타조알 공예도 구경하였다. 봄나들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찬조를 해주었다. 이주영장로, 장문자장로, 박선숙집사, 전정남집사, 최문수집사, 안동전도대 등이 각각 찬조하였다.

노년부 노래교실

아름다운 계절 4월을 맞이하여 남녀 65세 이상의 안동교회 교우들로 구성되는 노년부 노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열리게 되었다. 3월중에는 'The Bible Jesus'라는 제목의 영화를 감상하였고 4월에는 노래교실, 5월에는 봄나들이가 계획중에 있다. 한 달에 두 번 노래교실을 위해 서동진 선생이 바쁜중에도 지도를 맡아 수고해 주었다. 노래교실은 13일(목) 오후 2시와 18일(화) 오후 1시에 기도실에서 있었다. 회원들의 열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래 교실을 통해서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기를 바라며, 믿음 생활이 영적 충만함을 위한 노년부 노래교실을 위해 교우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마포삼열박사 유언 이뤄진다

마포삼열박사의 유해가 미국 카핀테리아 공동묘지를 떠나 지난 22일 한국땅을 밟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마포삼열박사 이장 준비위원회는 미국 카핀테리아 공동묘지에서 유족과 나성영락교회 교인 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장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서정운총장은 "평생을 한국을 위해 헌신하고 한국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마포삼열박사의 바람이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됐다"면서, "마포삼열박사의 이장을 통해 한국교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에 참석한 마포삼열박사의 넷째 아들 마화열박사(전 동산병원 원장) 내외 등 유족들도 아버지의 유언이 이뤄진 것이 감격스럽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마포삼열박사의 이장예배는 5월 9일 오전 9시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유족과 총회 관계자,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김인수교수는 "마포삼열박사의 유언이 이뤄졌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임에 분명하다"면서, "생전 마포삼열박사가 강조한 복음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신학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이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기철목사 기념강좌 개최

주기철목사기념사업회(회장:김상복)가 지난 4월

11일 고신대학교(총장:김병원)에서 '제11회 주기철목사 기념강좌'를 개최했다.

주 목사의 순교 62주기를 기념해 열린 이번 강좌는 김관선목사(산정현교회)가 일제시대 때 주 목사와 더불어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앞장서 투쟁했던 '신앙인 조만식장로'에 대해 주제 발표했고, 이어 산정현교회 백인숙전도사의 생애와 순교에 대해 그의 조카인 백한원장로(인디애나플리스한인교회)가 발표했다.

한편 지난 23일 산정현교회(김관선목사 시무)에서 열린 주기철목사의 순교62주기 추모예배는 이상규목사(고신대학교)의 설교와 김중은총장(장로회신학대학교)의 추모사가 진행되었다.

군선교 활성화 다짐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이명원) 선교부(부장:박인자)와 서울서남노회연합회(회장:강영혜)는 지난 4일 여전도회관 14층 강당에서 '선교여성의 날' 예배를 개최했다.



이날 '선한대로 만드신다' 제하의 말씀을 전한 문은종목사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린 육사 생도들이 기독교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면서 "기도하는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선교 여성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 참석한 회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국내외 선교사들의 사역 활성화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선교여성의 날 활성화를 위해 △총회 소속 군종목사, 군선교 교역자, 군목 후보생들의 사명완수를 위해 △문은종목사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 후에는 제 4회 여성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바자회 2차 기도회를 개최하고 준비상황들을 점검하는 한편, △좋은 일기와 많은 인원이 참석해 순조롭고 은혜로운 진행이 되도록 △목표액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뜻이 세계를 향해 이뤄지도록 △주관부서, 준비위원들 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했다

교회는 지금 "이단 '신천지' 경계령"

1994년 본교단 제80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최근들어 기성 교회에 침투해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무료성경신학원이나 기독교신학원을 전국 곳곳에 설립하고 기성 교인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들의 포교 방식을 분석해 보면, 지인들을 통한 일대일 개별 접촉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기성 교회에 포교자를 파송하는 이른바 '추수꾼 전략'을 내세워 교인들을 하나 둘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이 단체에 미혹된 교인들은 대부분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곳이 있으니 가보자"는 식의 감언이설에 속아 따라 나선 뒤 커피숍이나 개인 주택에서 계시론과 신론, 종말론 등에서 심각한 오류를 보이는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제직들이 갑자기 빠져나간다거나 담임 목회자를 비롯한 교역자에게 황당한 성경 해석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교회와 목회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보여 교회 뿌리 자체를 흔드는 등 심각한 피해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진용식목사(상록교회)는 "신천지 파송자들이 교회에 침투되면 일단 봉사를 열심히 하며 교인들과 친교를 두텁게 쌓아 놓는다"며 "그 다음 구역장을 맡거나 성가대 등 각 부서 활동에 깊숙히 개입하며 교인들을 빼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본교단 총회가 깊이 관심가져야 하는 당위성은 현재 이단사이비로 인한 총회 산하 교회들의 피해 보고 사례가 이단집단의 대표격인 '문선명집단(통일교)'보다 '신천지'에 더 많이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교회들 대부분은 '쉬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속병을 앓거

나 교인들을 빼앗겨도 그대로 방치하는 뒷처리를 보여 뒤늦은 감이 있지만 총회가 나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할 시기에 봉착했다.

게다가 총회 산하 교회에서 교회 수가 가장 많은 순천지역이나 손양원목사의 사랑이 깃들여 성지라 불리우는 여수지역에서의 '신천지' 활동이 본부가 위치한 과천 다음으로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 지역은 가뜩이나 '문선명집단'이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탓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 총회를 넘어 한국 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또한 피해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으로도 이어져 이혼이나 자녀가출 등 가정파탄의 사례도 늘고 있다. 결국 이 단체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져 대책 활동을 간구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무관심으로 이들은 쓸쓸한 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한편 본교단 총회는 '신천지'로부터 5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이단으로 규정지은 연구 자료집의 폐기 및 회수 청구에 관한 소송을 당했지만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료집 제작에 대해, "교리상의 혼란으로부터 교단의 교리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신앙상의 혼란을 방지해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결론지어, 종교적 목적을 위해 타 종교를 비판할 권리는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나 가치 등을 감안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기독교사회포럼

기독교 사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 선교·사회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2년만에 한자리에 모여 현재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 지구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기독교 사회운동의 발전을 위해 토론하는 모임을 가졌다.

본교단 청년회전국연합회, 농촌목회자협의회 등을 비롯해 에큐메니칼운동에 참여해 온 교회 단체, 교회 개혁 운동 단체 등 5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유일레저타운에서 열린 '2006 기독교사회포럼'(집행위원장:이근복)은 확대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독교 시각의 입장 정리와 함께 '대안

지구화' 를 제시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자' 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박성원교수(영신대, WCC중앙위원)와 이기호박사(평화포럼 사무총장)가 강사로 참여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세계교회의 대응',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이어서 기독교운동에 대한 총론적 평가와 이에 대한 전망을 3개 분과로 나누어 통일, 경제정의 양극화, 반지구화, 교회개혁, 평신도운동, 기독교 여성운동 등 13개 주제에 따라 토론하고, 이를 토대로 주제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회포럼을 준비한 주최측은 제안문을 통해 "기독교사회포럼에 참여하는 단체들간에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2006 기독교사회포럼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기독교 사회운동의 활동가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득한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 자산을 공유함으로써 활동가들 간에 새로운 소통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거쳐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하는 공간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제안문은 "포럼은 '세계, 교회, 기독교사회(운동/선교)단체'라는 하나님 선교의 시공간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입장을 공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를 원한다"면서 "교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한국기독교를 총체적으로 성찰하면서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한계 상황을 희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 주어진 과제를 설명했다.

다빈치코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박종순)가 뜨거운 관심속에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 '다빈치 코드'의 상영을 금지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총은 지난 7일 오후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영화의 배급사인 소니 픽처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다빈치코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한기총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홍재철)는 가처분신청 제출과 함께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이 영화에 의한 개인의 중

교적 신념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선교의 부정적 환경 조성에 우려한다"면서 "동명의 원작소설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가 역사적 소재를 내세웠지만 소설적 허구의 전환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갖게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는 물론 영화가 제작된 미국에서는 복음주의 교계 지도자들과 가톨릭주교회의가 이 영화에 대해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 정교회와 싱가포르 교회 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의 뜻을 모아 세계교회와의 공조를 통해 이 영화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밝히고 영화상영반대운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기총은 이에 앞서 지난 2002년에도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당시 가처분 신청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으나 영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은 예정된 상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간판을 내렸었다.

기독교여성, 교단연합과 협력 다짐



한국여장로회연합회는 지난 12일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기념관에서 제 7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송영자장로(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전 부총회장)를 선출하는 등 제반 회무를 처리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본교단 이금영장로가 부회장으로 임명됐으며 조은형장로와 유한열장로도 각각 총무와 부서기로 선출됐다.

이날 이현정장로(예장 여장로회장)의 사회로 거행된 개회예배는 류순상장로(기감), 공수자장로(기장), 이현정장로(예장), 임방자장로(재일여

장로) 등 4개 교단 여장로회 회장들의 촛불집화로 시작됐다.

이어 류순상장로의 기도, 공수자장로의 성경봉독, 뉴욕 나약대 최화진교수의 축가, 서정순목사(재일대한기독교 전국교회 여성연합회 총무)의 '평화, 여성, 신앙' 제하의 주제강연, 재정부장 이명원장로의 봉헌기도, 홍순자장로(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의 축사, 이덕기장로(기장 전국장로회 회장)의 격려사, 축도, 직전회장 윤혜경장로의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정 사학법 재개정 촉구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박중순)과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안영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이미 합의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여당과 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 공포를 강행함에 따라 이에 맞서 63개 회원교단은 물론 기독교계가 일치단결하고 1백50여 NGO들까지 연대하여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개정 사학법 철폐 및 재개정촉구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였다"고 경과를 설명하고 서명운동의 집계가 이루어지는 대로 국회와 정부에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청원서와 함께 전달해 "재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1천만 명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개방형이사제 도입,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학교의 장 임용요건 강화 및 교사들의 학교내 노조활동 허용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

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으로 소급하여 침해할 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 땅에 사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사학의 독특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종교계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도 박탈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에 따르면 한기총 회원 교단을 비롯한 기독교계는 현재 3백70여 개의 각급 사립학교(초등학교 10, 중등학교 2백88, 전문대학 17, 대학교 58)를 설립해 경영하고 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도 여장로 제도 채택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총회장:조원집)가 지난 2005년에 여성목사 제도를 통과시킨데 이어 올해에는 여성장로 제도를 신설해 예성 총회에서도 여성이 목사 장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었다.

예성은 지난 24~26일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1백년 성결교회 세상의 소망'을 주제로 제85회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벽두 처리안건'을 처리해 여성장로 제도를 신설했다. 예성총회의 '총회벽두 안건'은 지난해 총회에 상정됐으나 총회기간 중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올해 총회로 이월된 안건을 말하며, 여성장로 제도는 지난 제84회 총회에 상정됐었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복손우물기

2006년 5월호 · 통권 제159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종교회

발행인 : 박 병 옥

편집인 : (교회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이성철

발행일 : 2006년 5월 7일